

나에게 집중하는 6주 심층프로젝트

“사회복지사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

치유헌동가와 20명의 사회복지사들이 6주간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만나며 서로에게 집중하고 공감하는 심층 프로젝트입니다.
내 삶에 한 발자국 쉬어가는 섬표를 선물해주세요.

약한 이들을 어루만지는 삶과,
쓸모와 능력으로 경쟁에 내몰리는 삶속에서

우리는 때로 삶이 힘겹다고, 정말 지쳤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어보세요

중부재단은 “사회복지사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를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과 마음의 섬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엄마가 나를 안아주었을 때의 기분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존재 자체로 충분해집니다.

우리 안에 깊이 간직한 엄마를 만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면..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속살을 만나는 시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 모집개요

- 일시 - 2017년 10월 17일 (화) ~ 2017년 11월 21일 / 주 1회, 총 6회
* (매주 화요일 19:00~22:00 10/17, 10/24, 10/31, 11/7, 11/14, 11/21 - 저녁제공)
- 장소 - 헤이그라운드 (서울시 성동구)

- 1) 참여대상 : 나 자신을 만나고 서로에게 집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20명
- 2) 참여방법 : 중부재단 홈페이지 - 지원신청바로가기 - “사회복지사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
클릭 후 작성
- 3) 신청기간 : 2017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5:00pm
- * 본 프로젝트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인원이 모집될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4) 사업문의 : 유태연 (02-2191-7506)
- 5) 접수문의 : 이효진 (02-2191-7552)

2. 프로젝트 구성

- 한 분 한 분에게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치유 밥상
- 심리적 장벽의 빗장을 열게 하는 이야기 영상
- 내 삶의 여정에서 만난 생생한 5가지 주제들
- 마음의 맨살을 어루만지는 음악과 시
- 매주 1회/ 회당 3시간/ 총 6주간

※ 본 프로젝트는 참여자가 적극적·자발적으로 주역이 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6주 모두 참석 가능한 분들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젝트는 공감인과 함께합니다.